

주일 가족 예배

주일 오전 11시

인도 김용덕 목사

송영		찬양대
예배예의부름		인도자
*첫 찬송	9장 1,2절	다같이
*임재의 기원		인도자
예배 찬송	380장	다같이
교독문	60. 시편 139편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용섭 셀장
성경봉독	요 8:42-55	다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생명의 품	김용덕 목사
찬양과 봉헌	246장	다같이
소식과 교제		인도자
*주기도송	635장	다같이
*봉헌기도 및 축도		인도자
*일어서서	다음주 기도 이기련 셀장	
	현금 공수연 집사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40분

청년부 헌신예배

인도 최예신 청년

주일 찬양 집회		말은이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04장	다같이
기도		강희수 청년
성경봉독	계 22:10	권다혜 청년
특송		청년부
말씀	성경을 펴고	김용덕 목사
찬양	복 563장	다같이
성경퀴즈대회		말은이
다음주 특송 청년부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찬양과 경배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성경봉독	삼하 1:1-10	다같이
말씀	준비의 힘	김용덕 목사
소식과 교제	김용덕 목사	
축도	김용덕 목사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찬양인도	중고등부
말씀	김용덕 목사
기도회	설교자
	다음주 주관 제1여전도회

새벽 기도 모임

월-금 오전 5시

토/일은 쉽니다

1. 행복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정도옥 사모를 찾아 주세요.

2. 오늘의 주요행사

- 09:30 / 교회학교 예배
- 12:00 / 셀모임
- 13:40 / 주일찬양집회
청년부헌신예배
성경암송대회
- 15:30 / 청년부모임

3. 셀장님이 하실 일

- ①출석파악
- ②성경확인

4. 청년부헌신예배

- 오후 2시
- 성경암송대회와 함께

5. 주간행사

- ①부서별심야기도회(4일)
-중고등부
- ②다음 주 행사
-연석회의
-셀연합예배
- ☑다음 주 담당
-기도 / 이기련셀장
-헌금 / 공수연집사
-특송 / 살롬싱어즈

6. 건축위원회 소식

- 10월 20일(주) 브리핑 예정
- 경과보고와 설문조사 등

7. 릴레이새벽기도회

- 9/30 ~10/4 원덕규·원지혁셀

예배 시간 안내

주일가족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주일찬양예배	주일 오후 1시 40분 본당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새벽기도모임	매일 오전 5시 본당 (토/일X)
심야기도모임	금요일 오후 8시 본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청소년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본당

- 10/7 ~ 11 정필래셀
- 10/14 ~ 18 가용섭셀
- 10/21 ~ 28 김광자·권다혜셀
- 10/28~11/1 이명희·문미화셀

8. 모집

- 교회학교 반주자

9. 교우소식

- 환영 / 신상필목사님가정
- 임명 / 넷째 주 특송자(이경미권사)

10. 감사소식

- 예배참석감사드립니다

11. 암송성구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
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12. 기도제목

- 나라를 위해
- 성숙을 위해

13. 생활속제

- 안심하고 살기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용덕		
교육전도사	이연숙	출석전도사	이을순
시무장로	정필래	김광자	원덕규
안수집사	가용섭	권영준	
권사	이명희	김성자	문미화 오영숙
	이은희	윤영주	이경미 한순자
	김명순	송화숙	김미애
지휘	김선영		
반주	김옥경	최효신	허준영

그리스도와 겸손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에 비하여 훨씬 부족한 줄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든지 그 둘 중의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결국 겸손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누구 말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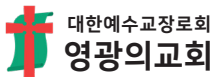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는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만 사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 반복하여 배우고 익혀서 믿음을 성장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심판에 유익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법이니 아직 부족한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떠올려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 그리스도..아, 그리스도..하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상처 받을 수 없으며 화를 낼 수도 없고 남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질 뿐 남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해법이니 꽃대로 삼아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우리의 완벽함이란 그리스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정진 자체이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해된 사람이라면 길을 찾은 자이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또한 알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광의교회 웹 공동체
<https://glory.community>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독배로 25
버스 6-1, 8, 16, 65-1, 111-2, 521, 523 광역버스 3001, 9200 / 백산아파트(원흥아파트) 하차

신앙상담 김용덕 목사
010-5287-2639

영적 질서를 세우십시오

지상설교 김용덕 목사
요한복음 8장 48-51절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질병이 이기듯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는 바른 자세가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바른 질서가 강한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른 영적 질서란 위로 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 로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외하거나 물질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무질서로 인하여 사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세워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세운 채 그냥 살아가심으로 질서의 본 을 보이셨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하며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 은 없고 남이 문제라고 여기며 사는 이들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욕기서를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는 이들은 모두 책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세워 산 욕만이 축복으로 나갔습니 다. 오로지 자신을 세워 걸으신 주님을 따라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서를 세우고
정진하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고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굳 게 가져야만 합니다. 빛은 어둠을 결국은 이기고 맙니다. 이 비전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남이 역류를 일으

킬 때 나의 순류는 남에게 오히려 역류가 되고 자신은 정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순류정진만이 해법이다 하고 어느 바둑고수도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깊이 새겨 들어도 좋을 말입니다. 전쟁의 종국은 질서있는 자의 승리이니까요

그러니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장근재 교수가 한 말입니다.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들 근육을 강화하려고 애들을 씁니다마는 그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오래토록 근육을 키우려는 많은 노력보다 훨씬 건강에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신앙 에도 적용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옳다 그르다 하여 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기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질서를 세워 살라는 환경에 불과합니다. 어둠은 빛을 세우라는 토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질서가 세워진 만큼 우리는 참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바른 질서로 금생과 내생에 복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 2

사랑탐구 181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죄와 상관 없이...
용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 히 9:28
다. 그 하나는 남을 용서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하고 깊은 이해는 했다손 치더라도 또 스멀스멀 혹은 갑자기 미움이 떠오르곤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의 한계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십니다. 또 다시 용서되고 또 다시 용서되시는 바로 그 분 그 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 걱정일랑은 그 분께 맡겨 버리고 하나님을 세워내는 일에 매진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말입니다.

오직 사랑

순수한 믿음 20

사랑이 창조의 원동력이며 사랑이 만물의 결속력이고 사랑만이 아름다움이기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그나마 본질적인 사랑의 표현들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둠이 되고 사랑이 적으면 아픔이 되며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니 모든 것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조합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며 사랑이 없는 믿음 또한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혼란한 것도 역시 사랑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기 때문이고 개인의 삶이 피곤한 것도 역시 그 이유 하나만이 근본 원인이니 사랑을 생각해 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원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고치면
고쳐지는 것 같으나
또 아픔입니다